

동의없는 녹음, 증거되나 ‘음성권 침해’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대법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녹음 증거 사용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A자산운용사에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영업소 폐점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원고에게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때 A회사의 마케팅부서장이 원고와의 대화를 원고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원고는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과 마케팅부서장(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침해와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환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음성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가 인정해온 것과 같이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해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

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춰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녹음행위가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측은 녹음 파일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 방송이나 배포 등 외부 공개는 하지 않았으며 ▲그의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녹음의 목적·방법·사용 범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증거 확보 목적의 녹음은 허용되지만, 공개·배포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 녹음은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목적과 사용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녹음의 목적·방법·사용 범위에 따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 대응과 증거 제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감축 불가… 석화 재편 복잡



김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정부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자구안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를 둘러싼 입장 차로 업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초대형 신규 설비 완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축을 전제로 한 재편 논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대산 지역에서는 감축과 통합 논의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울산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재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지만

9조원대가 투입된 샤힌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설비가 가동될 경우 국내 수급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에쓰오일은 최근 석화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단순히 생산 능력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체질 고도화와 경쟁력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우선이며, 원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첨단·고효율 설비 투자를 병행해야 산업 전반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샤힌프로젝트는 이러한 방향성과 맞닿은 사업으로, 완공 이후 원유를 직접 화학 제품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과 수익성을 높이고 기초 유분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270만~370만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재편안을 마련하는 국

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아람코를 등에 업은 에쓰오일의 이러한 입장이 달갑지 않다. 샤힌의 완공은 구조조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감산과 통합을 통해 정부의 입장에 부응하고 있는 기업들은 초대형 신규 설비가 예정대로 가동될 경우 감축 부담이 기업별로 불균등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중동산저가 물량 유입, 인도의 잇단 증설까지 겹치면서 국내 업계의 환경은 갈수록 녹록지 않다. 에쓰오일의 설비 투자는 단순 물량 조정이 아니라 향후 산업 경쟁력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자구안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샤힌프로젝트의 공정률은 이미 85%를 넘어섰다. 감축과 고도화라는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금 단순히 국내 업계의 재편만을 종용해서는 답이 없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5일 (음 10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48년생 배려하면 나도 존중받는다. 60년생 소식이 오니 서류를 제출한다. 72년생 세상이 복잡하여도 살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 84년생 숨기고 있던 간사한 죄를 동업자가 드러내니 오싹.



37년생 기대만큼 성과도 있다. 49년생 매파에게 소식이 오니 뜻대로. 61년생 심한 운동으로 무리. 73년생 그리운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이 나를 반긴다. 85년생 도끼를 갈아바늘을 만드는 자신의 진중한 행동은 신념.



38년생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집안의 무리수이다. 50년생 남의 싸움에 구경하지 말라 해를 입는 일진. 62년생 동료와 지나친 음주는 삼가. 74년생 강하게 하는 충고는 나만 힘들어진다. 86년생 아름다운 환경은 주변이 바르기 때문.



39년생 조상님을 생각하여 제사 잘 지내라. 51년생 비단옷을 입은 데다 꽃을 든 것처럼 행운이 가득. 63년생 표정 관리에 힘써라. 75년생 세력이 많아도 내리막길을 예상할 것. 87년생 독아청청(獨也靑靑)도 시대에 맞게 하도록.



40년생 거침없이 일을 해도 무방. 52년생 홀로 외로우나 왕따는 아니니 기다려보라. 64년생 기다리던 직장에서 소식이 오니 기쁘지 않다. 76년생 월급보다 지출이 많아 지니 어찌할거냐. 88년생 친한 친구 소식이 상복 수라 서글픔.



41년생 주변 사람 관리를 편하게 해야. 53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 배우자에게 차갑지 않도록. 65년생 아침부터 십 년생 목은 채증이 해스된다. 77년생 자녀의 훌륭한 인격은 가정의 평소 교육에서부터. 89년생 열을 얻은 듯 기쁜 하루.



42년생 근검으로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 54년생 건강이 각자 최우선 행복. 66년생 몸이 파래지도록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다. 78년생 배우기도 어려웠는데 올바로 써먹기도 힘들다. 90년생 만나면 가족끼리 싸움이나 굴욕상징 같다.



43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순간 거짓말로 변한다. 55년생 닭의 부리라도 되려면 좀 더 성실성이 요구. 67년생 강기로 스트레스 발산을. 79년생 많은 재산도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우니 잘 생각할 것. 91년생 주변에서 김씨가 도와줄 것.



44년생 부족해도 인내하면 복록이 찾아온다. 56년생 괴로움 속에도 즐거움이 있다. 68년생 조직에서 소속감이 있어야. 80년생 흥망성쇠(興亡成衰)의 고독함은 누구에게나. 92년생 혼자 있다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여차피 혼자 가는 인생.



45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마무리. 57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도 하자. 69년생 주변이 복잡하니 일찍 귀가하자. 81년생 배우자가 뛰어난 미인임을 나만 모른다. 93년생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은 친구를 만난다.



46년생 자투리무 밑을 지날 때 갓을 고쳐 쓰지 말라. 58년생 재물이 적으나 그래도 행운. 70년생 행운을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자. 82년생 베풀면 공덕이 오늘 다시 오게 되네. 94년생 내가 독불장군(獨不將軍)이 아닌가 되돌아보자.



47년생 부족하다고 염심여기다 큰코다침. 59년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사 인생하지 않도록 힘쓰도록. 71년생 지난 일은 빨리 잊자. 83년생 시간을 잘 지키기. 95년생 무관심이라도 따지기보다는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도 좋을 듯.



김상회의四季

주식시장 사주는

최근 주식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호황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잡을 수도, 혹은 시장의 변동성에 휩쓸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주식 투자 성공에는 정보 분석 심리 통제 타이밍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지만 명리학 관점에서 보면 타고난 사주 역시 투자자의 성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주로 보면 타고난 기질과 운의 흐름에 따라 투자시장에서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한지 예측할 수 있다. 투자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소는 재물은 뿐만이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인 비겁과 냉철한 분석력을 보여주는 식상 그리고 통제력을 가름하는 관성의 조화도 중요하다. 주식은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다.

따라서 기회 포착 능력과 과감한 실행력을 가진 사주가 유리하다. 사주 원국에 편재가 잘 발달한 사람은 큰 재물을 다루는 데 거부감이 없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대담함이 있다. 여기에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를 갖추면 주식 투자에 유리하다. 식상은 시장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빠르게 포착하는 축을 제공한다. 독립심 경쟁심을 의미하는 비겁이 강한 사주는 승부욕이 강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 기질을 갖는다. 특히 겁재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서 단기적인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형태를 보인다. 공포의 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에 인성이 과도한 사주는 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인성이 강한 사주 특히 편인이 강하면 논리와 근거를 따지는 분석가 기질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은지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라고 오히려 때를 놓치곤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91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기를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7			4					6
			4	1	3	9	5	
		7					3	1
		6					2	
8		2					7	
		3	8	2	4	6		
2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7	1	9	2	8	9	2
2	9	8	9	6	8	1	2	7
2	1	9	7	2	8	8	9	6
9	9	2	8	7	6	2	1	8
7	8	2	2	1	9	9	6	8
1	6	8	8	9	2	2	7	9
8	2	9	6	8	1	7	2	9
8	7	6	2	2	9	9	8	1
9	2	1	9	8	7	6	8	2

9	8	6	8	2	7	2	1	9
2	8	9	6	1	8	7	9	2
1	2	7	2	9	9	8	6	
9	1	8	2	8	2	9	6	7
7	9	2	1	8	6	8	9	2
6	2	8	7	9	9	1	2	8
8	7	1	8	2	2	6	9	9
8	6	9	9	7	1	2	2	8
2	9	2	9	6	8	8	7	1